

경기국악원 전통예술강좌 <오늘수업> 강의계획서

강의명	성인 팽과리	강사명	전삼근
교육기간 시작일	2025.8.13.(수)	종료일	2025.12.10.(수)
교육시간	오후 7:30 ~ 9:30		
요일	수	장소	제1강습실
강의소개	사물놀이 네 가지 악기 중에서 지휘자격인 팽과리는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금속악기 특유의 날카롭고 높은 소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경기국악원 전통예술강좌<오늘수업>성인 팽과리반에 오시면 날카로운 쇳덩이가 흥겨운 악기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은 ‘삼도사물놀이 가락’입니다. 사물놀이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수업 진도를 충분히 따라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의계획서

차시	주제	내용	준비물
1	강좌 소개 및 인사	강사 소개 및 수업진행 방법에 대한 대화 처음 수업을 듣는 회원들 대상 환영인사 2025상반기 수업 내용인 ‘삼도사물놀이’ 복습계획 설명 (삼도사물놀이는 수업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 한 학기를 넘어 수업 함)	
2	상반기 수업 되돌아 보기 1	새롭게 등록한 회원들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따라 갈 수 있도록 팽과리 구음(갱·개·지갱·그랑)과 기본 타법을 천천히 진행 할 예정 2025년도 상반기 수업내용(삼도사물놀이 가락)과 연계해서 수업 진행. 호남 농악가락 ‘오채질굿’과 ‘우질굿’ 복습	
3	상반기 수업 되돌아 보기 2	팽과리 ‘다스름’ 연습: 3소박 4박, ‘자진모리’ 박자와 같음 팽과리 기본 타법과 자세, 소리내기 동시연습 호남 오채질굿 - 우질굿 - 좌질굿. 연주 순서에 맞게 복습하기	

4	수업 돌아보기 3	다스름 연습. 호남 ‘풍류가락’과 ‘굿거리’ 3분박(하·나·아)의 호흡법, 몸 쓰기가 중요한 만큼 충분히 연습하기. 감아가는 호흡과 일정한 속도 유지가 중요함	
5	수업 돌아보기 4	빠른 3소박 4박 장단 ‘덩덕궁이’ 연습. 도입가락과 기본가락 그리고 변형가락 연습. 얕은반 사물놀이 연주에서 뿐 아니라 간단한 길놀이나 판굿에서 자연스럽게 연주가 가능하도록 편안한 가락 선정. (충분한 연습 필요)	
6	진도 나가기 휘모리 1	경기·충청 지역 농악 가락의 특색은 경쾌한 맛에 있다. 그 중에서도 휘모리(‘이채’ 또는 ‘잣은 가락’이라고도 부름)는 말 그대로 ‘휘몰아치는 듯’ 빠른 가락이다. 빠른 2분박 가락의 박 나누는 법을 먼저 익히고 이어서 호흡법을 배워본다.	
7	휘모리 2	김덕수 사물놀이 패에서 정립한 ‘하·나’의 호흡법을 배워본다. 1 과 2 즉, 숨을 한 번 내 쉬고 한 번 들이마시면 박자의 한 주기가 넘어 가는 것을 배워본다. ‘휘모리’에서 중요한 박은 1이다. ‘하·나’를 지속적으로 치는 연습을 해본다. ‘들숨’ 보다는 ‘날숨’을 중시 해서 연습해 본다.	
8	휘모리 3	‘굿거리’나 ‘자진모리’에서 쓰는 타법과 2분박 ‘휘모리’의 타법은 느낌이 다르다. 굿거리나 자진모리는 부드럽게 감싸는 타법이라 할 수 있고, 휘모리는 팽과리에 채를 던지는 듯한(차가운 느낌)타법 이다. 휘모리의 ‘갱’ 연습을 충분히 한 후 ‘갱, 지갱’ 연습을 순차적으로 해 본다.	
9	휘모리 중 짹쇠 1	사물놀이 패의 주장인 ‘상쇠’ 가 가락을 던지면 ‘부쇠’가 가락을 받아서 친다. 이것을 일명 ‘짹쇠’라 한다. 8박 놀음이 있고 4박 놀이 그리고 2박자 놀이가 있으며 상쇠가 한번 길게 놀 때 부쇠는 묵묵히 장단을 맞춰 주고 상쇠의 놀이가 끝나면 부쇠가 길게 가락을 뿜낸다.	
10	짹쇠 2	‘짹쇠’ 가락을 총 5개 장(章)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장별로 각각 상쇠, 부쇠가 노는 가락이 다름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타법 구사를 해 본다.	

11	작쇠 3	‘지갱’ 연습. 3분박 굿거리나 자진모리 에서 쓰는 ‘지갱’과 ‘휘모리’에서 쓰는 ‘지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직접 팽과리를 두드려 보면서 체험 하고 연습하여 몸 에 익혀본다.	
12	작쇠 4	일명 ‘다듬이쇠’가락 연습. 상쇠와 부쇠에게 각각 주어진 4 박자를 가지고 각기 다르게 연주한다. 이 때 각자의 장단 에 혹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바탕 쇠를 열 고 친 후 막고서 연주하는데 쇠를 막고 친다는 것은 둔탁 한 소리, 즉 ‘다듬이’소리와 같다 하여 ‘다듬이쇠’ 가락이라 부른다.	
13	휘모리 타법 연습	왼손 막음새 연습. ‘지’가 ‘갱’을 꾸민다. 합쳐서 ‘지갱’이라 부르는데 소리를 듣고 타법을 본다 하여 쉽게 따라 하기 어려운 타법이자 연주법이다. 일정한 ‘갱’ 연습이 우선 되 어야 하며 그 다음에 ‘갱’ 과 ‘갱’ 사이에 ‘지’가 붙을 수 있 도록 연구하고 연습해 본다.	
14	휘모리 타법 연습	일명 ‘달도 밝다, 별도 밝다’장단으로 불리는 팽과리 ‘갠지 갠지’ 타법 연습. 단순히 시간차를 두고 ‘막음쇠’를 한다 하 여 ‘갠지갠지’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한 박자 당 왼손 접 지를 한 번 더 해야 함을 인식하고 정확한 시간에 왼손 ‘막음새’ 하는 법을 체험하고 연습 한다.	
15	팽과리 연주에 알맞은 장구 반주법	사물놀이에서 악기별로 짝을 지어서 연주를 할 수 있다. 팽과리 의 짝은 장구고 징의 짝은 북이다. 팽과리 연습에 있어서 장구 와 함께 한다면 그 소리가 더욱 부드럽게 들린다.	
16	팽과리 연주에 알맞은 장구 반주법	팽과리 가락을 배우며 이해하기 어려운 분박과 호흡을 장 구 연주 하면서 이해하기도 하며 미흡한 부분이 채워지 기 도 한다.	
17	삼도사물 놀이 전 곡 연주	지금까지 배운 ‘삼도농악가락’(삼도사물놀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연주 해 본다. 한 학기동안 배운 것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다음 학기를 기 약해 본다.	